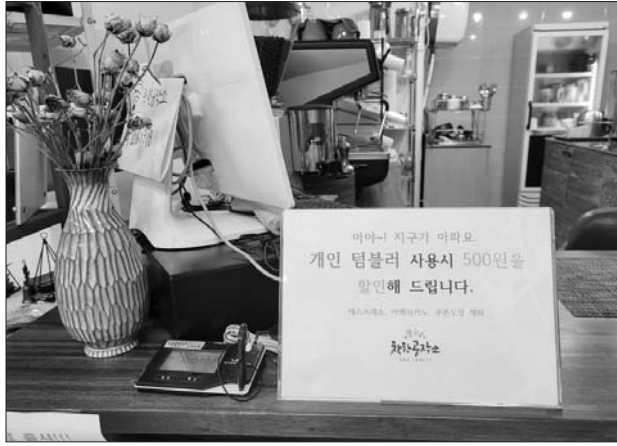


# 전주지역 온두레공동체, 탄소중립 실현 동참

### 텀블러 사용 시 음료 할인 · 다회용기 이용 · 배달음식 일회용품 거절 · 영상 제작 등 진행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온두레공동체가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는 시민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다른 공동체 회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역 내 온두레공동체들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환경보호 교육 및 캠페인에 나서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작한공작소'로 발전한 수공예 공동체인 '작한사람들'(대표 황수진)은 자체 운영 중인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음료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시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키트 제작교육과 체험도 진행키로 했다.



전주 지역 내 온두레공동체들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환경보호 교육 및 캠페인에 나서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중리맘'(대표 최춘경)에서는 방과후 요리 수업을 진행할 시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하기로 했고, 섬미촌에 오픈한 '이음다움' 카페에서는 샌드위치를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닌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음료를 텀블러를 사용해 구매할 시 가격을 깎아 주기로 했다.

'프리데코'(대표 모아름드리)에서는 아파트 공동체인 '송천자이회'는 배달음식 주문 시 플라스틱 수저와 나무젓가락 거절하기 운동과 친환경 수세미 및 설거지 비누 만들기 등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돌봄공동체인 '나뉘드림'(대표 박옥선),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대표 이국영), '도담도담연구소'(대표 김희우)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구지킴이 교육과 분리수거 실천 교육, 환경 캠프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과 함께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를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로 선언하고,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를 출범했다. 시는 또 전북은행, 농협 등 금융계와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온두레공동체의 작은 실천 하나가 기후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되고,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1인가구 고독사 대응 앱 도입

### '전주시민 안심서비스 앱' 운영...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독거노인을 비롯한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도입된다.

전주시는 독거노인이나 이혼·실직·우울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 안심서비스 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주시민 안심서비스 앱은 고독사 위험 세대가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등록해 놓은 다수의 구호자에게 GPS로 파악된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인다. 별도의 서버가 필요 없어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없고 앱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시는 우선 평화동 사회보장특례지원 구역에서 독거노인과 중장년 고립된 심 1인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나서 적절한 휴대폰 미사용 시간을 조정할 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안심서비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SK 윈스토어에서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이준배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안심서비스 앱 도입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



지서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 안심서비스 앱은 경남 합천군이 개발, 무상으로 배포한 앱을 활용해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팀 모집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연말까지 지역의제 발굴 · 지역자원 조사 진행

전주시가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시민 모임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센터장 원민)는 오는 22일까지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리빙랩-공동생산)'에 참여할 팀을 모집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시민이 직접 찾아보고 실험해보는 혁신 사업이다.

사회혁신센터는 이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1차 연도에는 지역의제를 발굴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역 자원 조사를 하게 된다.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우수 활동팀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참여 팀은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프로젝트별 최대 1000만 원의

수행비와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전주의 활동공간을 지원받는다.

모임 구성원 과반수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의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센터는 10일 제안서 작성 방법과 예산편성 기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신청 팀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면접심사 통해 계획의 구체성, 예산의 적절성, 문제인식, 의견수렴 계획 등을 평가한 뒤 다음 달 1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3년간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에서는 ▲길고양이 문제 해결 해피나비 프로젝트 ▲청년정장대어 두드림 옷장 ▲전주형 공동체 화페 꽃전 ▲동문 현책방 살리기 ▲시민 주도 노선개편 해피버스 등의 사회혁신 사업들이 발굴됐다. /김윤상 기자

# 조깅 하며 쓰레기 줍는 '플로깅' 실시

### 전주시 야호학교, '나를 찾는 아카데미' 환경 캠페인 진행

전주지역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캠페인을 벌였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지난 6일 대학생 멘토 3명과 청소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를 찾는 아카데미'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서 플로깅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사를 줍는다'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인 'plocka upp'과 'jogging(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은 각자의 일상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플로깅에 앞서 청소년들은 ▲분리수거력 테스트 ▲다양한 용품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알아보기 ▲함께 지킬 공동 규칙과 개인 규칙 생각해보고 실천목록 쓰기 등의 활동을 가졌다.

장경수 교장은 "최근 이상기후, 온난화 등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며 "지역 내 청년과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캠페인이 보다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치매환자 가족 위한 '헤아림' 교실 운영

###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9일부터 2주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아림' 교실을 운영한다.

'헤아림' 교실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들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가족지지 프로그램이다.

'치매 알기와 돌보는 지혜'를 주제로 열리는 '헤아림' 교실은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정신행동 증상 및 치매 종류별 초기증상 위험요인 이해 ▲마음 이해하기 ▲의사소통 방법 학습 및 응용 ▲치매환자 가족의 자기 돌보기 등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

'헤아림' 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그룹으로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281-6294)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헤



아림' 교실은 예술심리 치료와 연계해 치매가족 및 보호자간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돌봄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줘 심리적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료 후에는 자조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인지저하자와 경도인지장애 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두뇌가 말랑말랑' 인지기강화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인지기강 교재를 활용해 30분 내외의 통화로 인지학습을 지도받고 상담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